

# 예술 옷 입은 오월 광주, 베니스에서 꽃 피우다

‘민주·인권·평화 오월 광주 정신, 베니스에서 꽃 피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 대규모 특별전을 진행했다. 전시는 코로나 19 속에서도 타이베이, 서울, 필름, 광주 옛 국군광주병원 등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광주정신’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구촌에 알릴 5·18 특별전이 이번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을 오는 4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7개월간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렌디스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전 세계 미술축제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시 관람차 베니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오월 광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전 타이틀은 ‘꽃 핀 쪽으로’ (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제6장 소제목에서 따온 제목이다.

세 개 섹션으로 나누어지는 특별전에는 국내외 작가 11명이 참여하며 한강 소설가도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섹션은 5월 항쟁과 한국 민주화 역사를 소개하는 아카이브 전시다. 외국 관람객을 위해 5·18민

주화운동에 대한 사료와 동시대 실천으로서 예술을 주제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아카이브 전시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유경남 큐레이터가 협력했다.

두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커미션 작품으로 구성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GB커미션을 통해 개최지 광주에 기반한 미학적·이념적 가치를 예술적 언어로 표현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평적인 질문과 비엔날레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실험해왔다.

이번 전시작들은 광주의 역사, 기억, 트라우마, 전통, 건축 및 정신적 유산 등을 다루고 있다.

카데르 아티아의 ‘이동하는 경계들’은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만난 5·18 유족들의 이야기와 정신과 의사 정혜신 등의 인터뷰를 통해 상실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 국군광주병원의 의자와 의족, 신발 등을 배치한 설치물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다.

배영환 작가의 ‘유형가: 입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대 완공된 광주 시내 보도블럭에 ‘입을 위한 행진



소설가 한강

광주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

4월 20일~11월 27일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렌디스 전시장

홍성담·박화연·호 추 니엔 등 11명... 소설가 한강 관객과 대화

곡’의 가사를 새겨넣은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 인내를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작가 호 추 니엔의 ‘49번째 깨’는 한국 근대사의 민중항쟁과 혁명을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세 번째 섹션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5·18과 민중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1980년대 제작된 홍성담의 오월민중항쟁연작판화는 5·18 당시 시민들이 연대하는 생생한 장면을 보여준다. 50점 이미지와 작가가 직접 쓴 시는 하나의 책으로 묶어 5·18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체로 전시된다.

노순택의 ‘망각기계’는 5월 당시 사랑한 이들이 묻힌 광주 망월동 옛 묘역을 촬영한 이미지이다. 색이 바래가는 영정사진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잊혀지고 무엇이 기억되는지 질문한다. 안창홍의 ‘아리랑 시리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 속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을 찾아내고, 개인의 서사를 넘어 역사의 단면을 포착해 회화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진 마이어슨은 군중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화작품 ‘리바이던’과 AR을 활용한 ‘Sequence 4.0’으로 관객 참여적 작품을 구상했으며 최선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이자, 가장 쉬운 참여의 방식인 숨쉬기를 매체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베니스 현지와 광주를 연결하는 작업도 만날 수 있다. 김창훈의 ‘광주 사운드스케이프’는 옛 전남도청 및 상무관, 5·18민주묘지 등 오월 현장의 주요 소리를 들려주며 박화연은 직접 인터뷰해 모아 온 5·18에 관한 광주 시민의 기억을 통해 옛 전남도청의 광장을 전시공간에 이끌어 온다. 서다솜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각기 다른 향정의 참여방식을 이야기한다.

재단은 해외문화홍보원, 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전시연계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강 작가와 로마사 피렌체 주세 피나 데 니콜라 교수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와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이다. 베니스를 중심으로 한국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카데르 아티아 작 ‘이동하는 경계들’



호 추 니엔 작 ‘49번째 깨’

광주비엔날레

## 경남 마산에 광주미술 뽐낸다

드림미술관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선정 4월29일~5월22일 마산현대미술관 전시

광주지역 청년작가들이 경남 마산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는다.

드림미술관(관장 김도영)은 최근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2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산 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시프로그램을 지역

유휴공간에 매칭하고 순회 전시, 지역민에게 다양한 시각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드림미술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산현대미술관을 사업 거점 전시공간으로 확보했다. 전시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22일까지 마산현대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의식의 그림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간의 의식 아래 잠재하는 무의식을 탐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획이다.

전시에서는 평면, 사진, 설치, 미디어 등 다채로운 장르의 시각예술작품 약 40여 점 선보이며 김은경, 김자이, 문선희, 윤연우, 정덕용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중 연계프로그램으로 전시해설과 더불어 ‘치유의 숲’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마산현대미술관

## 서구공공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진행

서구공공도서관은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문화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계층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 직접 방문해 동화구연, 독후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는 시간이다. 취약계층에 다양한 독후활동과 문화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 소통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와 사랑모아주간보호센터 두개 기관에서 각각 6회씩 열린다.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달래내 꽃놀이’, ‘인절미 시집가는날’ 등을 주제로 역할극 활동 등이 열리며, 사랑모아주간보호센터에서는 ‘너는 씨앗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등 그림책을 선정,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62-654-430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코로나 여파...광주시립예술단 공연 취소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광주시립예술단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7일 광주시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립창극단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풍류인 광주-북구’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이번 공연은 김규형 신임 예술감독의 첫 공연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볼 수 없게 됐다.

오는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소리꾼 김영임과 김산옥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던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도 취소됐다. 시립합창단은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재즈밴드 리더인 팩토리과 빛고를 댄서스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유·스퀘어 문화관 4월 6일~30일 휴관

유·스퀘어 문화관이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17일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시설 점검을 위해 오는 4월6일부터 30일까지 임시휴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를 약 한달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현재 대관이 예정돼 있는 공연에 한해서 취소나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무등풍류 댄-봄 마중 가세~’

전통문화관 두번째 무대, 경칩·춘분 주제 20일, 줄타기보존회 공연·한복체험 진행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융복합 프로그램 ‘무등풍류 댄-봄 마중 가세~’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펼쳐진다.

3월 절기인 경칩과 춘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월 ‘전통문화관 개관 10주년-시민 동락(同樂)’에 이은 두 번째 무대다.

먼저 오후 1시부터 ‘개구리와 노랑나비’ 전시가 전통문화관 숲속대문 주변 등에서 진행된다. 전통 오방색 가운데 두 가지 색을 섞어 얻은 ‘오간(五間)색’을 활용해 제작한 개구리 캐릭터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는다. 노랑나비 의자 포토존에서 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경칩맞이 ‘개구리 모양 메도꽃이 만들기’ 체험(선착순 50명)도 진행된다. 입석당에서는 한복을 대여할 예정이며 공예품 만들기와 한복체험은 무

료다. 이어 너털마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의 초청공연이 진행된다. 줄타기는 줄타대가 어릿광대와 함께 삼현육각의 연주에 맞춰 재담과 춤, 소리, 아니리를 섞어가며 갖가지 기예를 벌이는 놀음이다. 줄타기 예능보유자 김대균 명인을 비롯해 20여 명의 보존회원들이 함께한다. 줄타기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우천 시 공연은 서석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면과 비대면 행사로 병행 진행되며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모든 행사는 무료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가능.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